

남천현 총장,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3400만원 기부

남천현 총장(우석대학교)이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3,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00만 원을 전달한 남 총장은 올해도 2,4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남천현 총장은 "대학을 둘러싼 교육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우리 대학교가 학생중심대학·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대학·글로벌 캠퍼스로 도약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2월 말 우석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한 남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항구적인 대학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 환경정화 활동 실시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조수행)은 16일 새벽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선정해 쓰레기들로 인해 주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연보호협회'와 동참해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꾸준한 환경정화 활동은 추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화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 외에도 빨간봉사, 방치된 연탄나눔,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지역 사회의 선수가 되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시,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투명가림막 설치와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공무원과 민원인 간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15대)를 설치했다.

양방향 마이크는 민원창구 직원과 민원인이 각각 마이크 및 스피커를 이용해 작은 소리라도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그동안 어르신, 난청, 다문화가정 등의 민원방문 시 큰 소리로 대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방향 마이크 설치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편안한 민원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 이하 센터)는 16일,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경찰서, 남원시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례회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위해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방범지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센터에서는 이날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위험요인 평가, 양 기관 공동으로 현장 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협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랑나눔! 정성듬뿍! 행복반찬 나눔’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저소득 160여 가구에 밑반찬 전달... 손길봉사도 함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16일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회장 이성희) 주관으로 홀로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회원 20여 명이 '사랑나눔! 정성듬뿍! 행복반찬 나눔'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160여 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외출이 더욱 힘들어진 홀로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일부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이 되어드리고 청소와 식사를 돕는 등 손길봉사활동도 펼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성희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만큼 맛있게 드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봉사자들 덕분에 지역사회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봉사자들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보훈복지의료공단 전주요양원, 대자인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전주보훈요양원 개원준비단(단장 박진기)은 입소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자인병원(원장 이병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입소자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의료체계 마련 등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박진기 개원준비단장은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와 더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보훈요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규모로 올해 4월 전주시 삼전동 일대에 개원을 앞두고 입소



자 모집중에 있다. 앞서 개원준비단은 지난 14일 효사동가족요양병원(원장 김정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한옥교육 수료생 창업 협동조합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에서 한옥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창업 협동조합인 한옥연(대표 김동인)이 그동안 얻은 수익금 1천만 원을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고 밝혔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동인 대표와 이정수 사장 등을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동조합 한옥연은 전북대의 한옥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중심이 돼 만든 한옥사업 회사로 울산, 전주, 고창 등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와 인접한 고창읍내에 한옥기업 설립을 위해 준비하면서 한옥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북대와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대 한옥이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는 등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한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옥건축학과가 국내 처음으로 고창캠퍼스에 설립됐다.



김동인 대표는 "올해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가 본격 출항하는 시점에 우리와 같이 전북대에서 한옥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우리가 전북대에서 한옥기술을 익혀 창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후배들 역시 국내 최고의 대목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이·미용 재능기부 실시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16일 관내 거주하는 홀로어르신 5분을 모시고 이·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르신들의 청결을 위한 이·미용봉사를 실시하며, 봉사시간 내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황승일 회장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이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뿌듯함을 느낀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용봉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5동 선종합유동, 삼계탕 팩 206개 기탁

전주시 효자5동 주민센터(동장 김수정)는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순식)가 주관하고 (유)선종합유동(대표 강선구)에서 후원하는 삼계탕 팩(206개, 180만원 상당)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육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선종합유동은 유류품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대립, 목우촌, 롯데, 하림, 해태, 오양효립원, 해가원, 워당 등 식자재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효자5동 착한가게로 선정돼 저소득 세대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품목들을 기부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효자5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순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효자5동 주민을 위해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더 행복한 효자5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20년 임용 교수 모임, 봄 맞이 기념 식수

지난 2020년 상반기 임용된 교수 모임(회장 김현경?과학교육학부)이 지난 15일 기념식수를 통해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김현경 회장을 비롯해 김병남 부회장(사학과), 이재우 부회장(고분자나노공학부) 등 2020년 상반기 임용 교수들은 새롭게 단장한 대학본부 별관 앞뜰에 서부 해당화를 심었다.

서부 해당화는 꽃말이 '산뜻한 미소'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모든 구성원들이 산뜻한 미소를 머금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임용 교수들은 지난해 전 회장인 심현주 교수(약학대학)의 주도로 대학발전을 위해 3천만 원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철학자 스피노자는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주어진 결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강단과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있게 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새학기에는 꽃말처럼 온화한 마음으로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이기는 의원, 선별진료소 위탁운영 협약

정읍시가 지난 15일 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시는 선별진료소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 선별진료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검사 결과 통보, 심층역학조사, 병상 배정 요청, 재택치료 업무 등 보건소 고유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업무협약 기관은 선별진료소 접수·안내, 검체채취, 검체 이송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계 무궁화신협-자율방범대, 복지서비스 협약

장수군 장계면 장계무궁화신협(대표 송성수), 장계자율방범대(대장 곽한욱)는 지난 11일 장수경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정숙, 이광춘)와 함께 빅드라이빙(나눔순찰 운영) 업무 협약을 맺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빅드라이빙 사업은 장수경찰서와 장계자율방범대가 합동 순찰을 하고 순찰한 거리에 따라 장계 무궁화신협이 순찰거리 1km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송성수 무궁화신협 대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드라이빙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한욱 장계자율방범대장은 "3년째 꾸준히 빅드라이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계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며 지역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합동 순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